

세계경제질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한국의 유라시아 정책

(최종보고서)



2015년 10월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Knowledge Service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세계경제질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한국의
유라시아 정책”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0월

연 구 주 관 :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연 구 기 간 : 2015. 04. ~ 2015. 10. (7개월)

연구책임자 : 한 홍 렬(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장 귀하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컨설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 사업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제 1장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제 1장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

러시아는 단일경제공간에 탈 소비에트 국가들을 추가로 가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2015년 1월에 출범한 것은 이러한 시도의 일정한 성과이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옛 소비에트 연방국들을 주축으로 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며 유럽연합형 통합을 천명한다. 터키와 인도를 아우르는 경제공동체 창설과 유럽연합과의 공동시장 창출을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구상과 추진과정은 이 지역의 전반적 세력구도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이미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¹⁾ 이와 같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의 재편성 작업이 지속될 경우, 유라시아 지역의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핵심 사안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도는 21세기 들어 지속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유라시아 경제통합 움직임은 국제적 환경변화라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제기하는 도전의 예외가 아니며 경제구조의 성격상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정책은 그 실질적 성격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응답 고려되어야 할 응전의 한 형태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세계경제 흐름 속의 유라시아 지역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유라시아 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20세기 후반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을 규정한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성장모형으로서의 역할이 소진되고 그것이 잉태하고 있던 갈등적 요소들을 현재화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반복적으로 글

1) Dragneva, Rilka & Wolczuk, Kataryna. (2012) "Russia, the Eurasian Customs Union and the EU: Cooperation, Stagnation or Rivalry", Briefing Paper of Chatham House

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함에 따라 국가의 정책에 주된 위협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금융위기가 초래하는 경제의 불확실성은 국가를 막론하고 성장을 제한하는 각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른바 ‘New Normal’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²⁾ 한편, 세계경제의 지형도는 경제통합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 뿐만 아니라 지경학적(Geoeconomics) 관점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 지형의 변화는 정치 안보를 포함한 국력의 위상변화와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고 이는 다시 경제정책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세계화로 인하여 약화되었던 정책적 공간(policy space)이 다자간 차원의 무역질서가 표류함에 따라 되살아나고, 지역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만발한다.

세계화가 주도한 지난 몇 십년간의 정책 조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외적인 경향에 가깝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이론과 정책적 이념이 자리 잡은 이후에도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고 오직 현상적 변이만이 있어 왔다. 2차 대전 이후의 브레튼우즈 체제 역시 정치적 냉전구도와 대칭적 관계에 있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1930년대 세계적 보호주의 망령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된 것도 세계화와 시장개방 정책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항구적 지위를 누릴 수 없음을 보여준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지역적 경제구도는 국가간의 경쟁구도(rivalry)를 변화시키고 있다. EEU를 단순히 경제통합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소이다. Luttwak(1990)이 설파한 바와 같이, 국가간의 갈등은 정치군사적 수단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50년대 이후 유럽지역

2) 지속적 저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New Normal’ 시대는 높은 불확실성하에서 통상적인 경기변동적 대응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불확실성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우연적 발현이나(90년대 IT시장) 대규모의 인위적 수요창출(미국의 양적완화) 등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 성공적인 미국시장을 제외하고는 저성장 기대를 초월할 수 있는 변화가 가시적이지 않다. 오히려 불평등으로 인한 만성적 수요부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자산시장의 위험 등 투자와 소비를 저해하는 불확실성 요인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제의 New Normal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